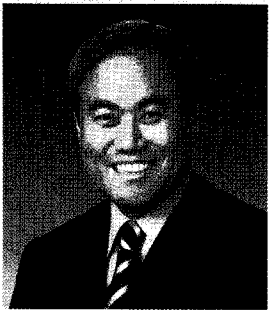


대학 경쟁력, 변화만이 살길이다



서 거 석 |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 비교형사 법학회 회장, 한국 소년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과대학 학장, 국립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제 15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소년법』, 『기술과 법』, 『생활 속의 법』 등을 출간했으며, 논문으로는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외 다수가 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는 진화론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윈은 핀치새의 부리가 갈라파고스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적합하도록 진화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든 종(種)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요즘,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의 생존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도 학령인구의 감소나 글로벌화의 가속화 등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 걸까요?

전북대, 변화에서 희망을 찾다

2006년 말 필자가 대학의 행정 책임을 맡을 당시 전북대학교의 위상은 크게 추락해 있었습니다. 지역의 선발 거점국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전북대 역시 1970~1980년대까지 한강 이남 최고 대학의 명성을 자부하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필자는 우리보다 앞선 대학에 대해 연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학들의 선진시스템을 배우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설명회를 갖고 구

성원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제도와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연구 경쟁력을 위해 교수들의 승진 요건을 두 배 이상 높였습니다. 재임용도 한 번만 가능토록 했고, 정년보장 교수들도 의무적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대신 우수 연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네이처'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교수들의 논문이 속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평생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입학하면서부터 진로 설계나 대학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학년별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게 하였으며, 특성화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취업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년 만에 다른 대학을 벤치마킹하던 전북대가 오히려 이제는 다른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도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예전의 전북대 위상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대학도 살고 나라도 산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lumn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대학 교육의 경쟁사회 부합도'는 57개국 중 51위였습니다.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 역시 50위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최근의 세계 대학 평가 결과는 또 어떤가요. 평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과 세계적인 대학과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시아 지역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학들은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특성화 명품 학과' 육성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난립해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합니다. 때문에 국립대간 또는 사립대간 통합뿐만 아니라 통합 시너지 효과가 큰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을 이루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 경쟁력을 높여려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학 경쟁력과 재정의 규모는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대교협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재정 확충을 비롯하여 자율성 신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대학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교협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대학도, 대교협도, 정부도 변화를 통해 진화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변화만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

